

“생태체험의 메카’ 함평에서 봄을 만끽하세요”

함평 자연생태공원·양서파충류생태공원 각광 멸종위기 동·식물 전시 관람·생태 체험 가능해

절기상 입춘이 지나면서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하나 둘 깨어나는 계절을 앞두고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생태체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매년 관람객의 인기 속에 운영 중인 함평군 대표 관광지로, 대동면과 신광면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특히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육성하고, 전시 관람과 생태체험이 가능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자연생태공원은 크게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원은 저마다 다른 테마로 조성돼 있다.

자연생태공원은 ‘쾌적한 자연 환경 보전’

과 ‘멸종 위기 각종 동식물 보존 육성’을 목표로 56만㎡ 부지에 조성돼 있으며, 자연생태과학관, 다목적전시관, 온실전시관과 반달가슴곰관찰원, 수서곤충관찰학습장, 우리꽃생태학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반달가슴곰관찰원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 지정된 반달가슴곰(11마리 사육 중) 상시 관람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반달가슴곰 사육을 통해 희귀종 생물 관찰을 통한 학습 및 학습성, 희소성에 대한 세계적 공익적 가치 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국내 유일의 양서파충류 동물원으로 뱀, 악어 등 특색 있는 종을 관람할 수 있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악어·아나콘다관, 생태전시관, 거북관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00종 411마리(뱀 56, 기타파충류 188,



양서류 104, 초식동물 63마리)의 양서·파충류가 전시되며, 멸종위기 1·2·3급 33종 62마리를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삼악어, 늑대거북, 미안파비단뱀, 수마트라왕도마뱀, 크레스티드게코, 팻테일게코 등이 대표적이다.

함평은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4·4·8 함평관광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인 생태체험과 교육의 장인 함평

자연생태공원은 인기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봄나들이를 오셔서 생태체험을 즐기시고 공원을 거닐며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실 매월 2회 동 주민센터 순회

목포시가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와 법률문제를 상담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목포시 고문·위촉 변호사(고문 5, 위촉 3) 8명을 선정해 매월 2회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75회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했고, 시민 1,420여명에게 상담을 진행해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올해 두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재산권 및 상속 등 각종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오는 6일에는 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적극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논 타작물재배 지원 확대 추진 한다

영광군은 쌀 공급 과잉 및 소비량 감소(1인당 56.7kg)에 따른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의 논농 지원 단가에 대하여 논에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 시 ha 당 50만 원을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 보전금은 논농의 경우 ha 당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논농 재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참여 의지를 높인다.

논농 재배 시 농가가 희망하면 100% 정부 수매가 가능하여 유통 문제도 해결한다. 하계 조사료는 ha 당 430만 원이 전략작물직불제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우리군 홍길동 농가가 ①동계작물(보리, 조사료, 밀)과 하계 조사료 재배 시 전액 국비로 ha 당 480만 원, ②동계작물(조사료, 밀)과 하계 콩 재배 시 ha 당 300만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③ 동계작물(보리)과 하계 논농, 일반작물을 재배할 시 국비와 지방비로 ha 당 300만 원, ④동계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하계 논농, 일반작물을 재배할 시 국비와 지방비로 ha 당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영광=서희연 기자

무안군, ‘2023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4년 만에 실시한 대면교육에 농업인 2,500명 참여



무안군이 최근 실시한 ‘2023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2,5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4일간 승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4년 만의 대면 교육으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등 공통 과목과 벼, 양파·마늘, 고추, 한우 등 전문과목을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총 4일간의 교육에 2,50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해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의 교육 열정이 드러났다.

군은 이번 새해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4개 분야 전문과목의 강의를 진행해 농업인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전문과목인 전남농업기술원 신서호 연구관의 벼, 지오텍 권영석 대표의 양파·마늘, 파속채소연구소 조명철 소장의 고추, 광주축산농협 김형호 과장의 한우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열띤 강의를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새해보건교육’ 순회...14일까지 1100여명 대상

영암군이 2월 2일부터 14일까지 군민건강관리를 위한 새해보건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11회에 걸쳐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관내 농업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전한 폐의약품 배출 ▲자동심장중격기 사용방법 ▲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예비맘 풍진(MMR)예방접종 지원사업 ▲진드기, 기생충 감염병 예방

▲영양플러스 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등 26종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감염병 예방 교육,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예방접종 독려, 공공심야약국 운영,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운영 등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등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진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한 권에 담아내

문화관광 가이드북 증보판 2,000부 발간

신안군은 역사와 문화 주요 관광자원을 한 권에 담은 문화관광가이드북 증보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교재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기획자나 관광객들이 여행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460여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역 소개, 문화·관광 명소, 축제, 자연기 여행, 교통, 숙박, 체험관광 등을 총망라했다. 명승에 새로 등재된 섬등반도와 이달의 추천 관광지, 대한민국 정치역사 아카이브 홀, 한반도 평화의 숲, 이색 체험, 권역별 축제 등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반영했다.

군에서는 가이드북을 문화관광해설사, 내고장 알리미, 섬 코디네이터, 여행사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전국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신안군수는 “매년 관광가이드북 증보판을 발행해 신속·정확한 관광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명주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 온실가스를 없애고
- 미세먼지는 줄이고
- 기후변화까지 막는
-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